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 방안*

정 창 우

서울대학교 교수 · 인성교육연구센터장

An Embodiment Approach for Character Education an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Jeong, Chang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4 2016

Revised Aug 19 2016

Accepted Sep 28 2016

Keywords:

character education, life skills or know-how, embodiment, confucian tradition, moral psychology, cognitive psychology

주제어:

인성교육,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체화, 유학 전통, 도덕심리학, 인지심리학

ABSTRACT

The objective of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to embody life skills or ethical know-how necessary to realize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beyond the level of providing the opportunities for practical experiences. In a coherent and consistent manner described in the objective, the ideal image of the educated person in character education needs to be defined as a person who has a readiness-for-action proper to every specific lived situation by the embodiment of life skills or ethical know-how. For the purposes of my argument, I will use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the areas of moral psychology, cognitive science and psychology as well as the confucian tradition. Lastly, I will present a character education model based on the embodiment approach, and discuss the education competencies of teachers and school principal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model.

국문초록

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실천·체험 기회를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skills) 또는 노하우(know-how)를 '체화'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이와 일관되게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가 체화됨으로써 즉각적, 자발적으로 행위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신을 병행하는 수신과 수양을 통해 삶의 기술로서의 덕을 체화·체득할 것을 강조한 '유학적 전통' 뿐만 아니라,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실증적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체화적 접근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의 실천적 적용에 필요한 교사와 학교장의 실천 역량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연구소 지원금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 Corresponding author, jcwoo@snu.ac.kr

I. 머리말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possible future)'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미래(preferable future)' 혹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의 측면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다각적으로 설계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타인과의 관계적 삶과 개인의 삶이 보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개선되거나, 개인적, 관계적, 공동체적 삶의 질적 개선이나 진보가 이루어진 상태로의 변화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현재보다 '더 나은' 혹은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에 강조점을 둔다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학교교육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녹아난 사회를 실현하고 관계적으로 조화로우며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은 특히 인성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미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인성교육이 중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를 위해 인성교육의 목표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skills) 또는 노하우(know-how)¹⁾를 '체화(embodiment : 體化)'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

1)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는 단순히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앎'에 가깝다. 지식 유형으로 말하자면,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는 듀이가 말한 '사물이 이러저러하다는 지식(knowledge that ...)'이 아니라 '사물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and about things)'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know-how)에 가깝다(Dewey, 1922: 177). 또한 일상언어학파를 주도한 영국의 현대 철학자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이 말한 '사실을 아는 것(knowing that ...)'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아는 것(knowing how)'에 가깝다(Ryle, 2004: 34-39). 예를 들어, 듀이와 라일 모두 '자전거에 관해 아는 것'과 '자전거를 실제로 탈 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나 서로 별개의 차원이고, 전자에 의해 후자를 규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술 혹은 노하우가 인간다운(혹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는 자전거타기, 수영하기, 악기 연주하기와 같은 예·체능 기술이나 노하우, 혹은 구두를 만들거나 집을 짓는 공학적 기술과 같은 실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앎에 실천이 더해져 획득되고 성취된 실천적인 앎을 가리키며 '삶의 이치(理致), 삶의 이상(理想), 혹은 절도(節度) 등에 맞게 제대로 할 줄 앎'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혹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언제, 어느 정도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삶의 기술 또는 노하우의 '체화'는 유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최근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혹은 인지심리학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고, 체화(體化)·체득(體得)을 통해 몸에 밴 올바른 행위 성향 및 삶의 기술로서의 '덕(德, virtues)'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신을 병행하는 수신과 수양을 바탕으로 (삶의 기술로서의) 덕의 체화·체득을 강조한 유학 전통 뿐만 아니라,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경험적, 실증적 연구 성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다학문적 관점을 통해 본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

본 장에서는 유학적 전통과 최근의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를 돕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A. 유학의 수양론 전통에서 본 체화적 접근

몸과 마음의 관계 차원에서 보자면, 유학의 수양론 전통에서는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주류 철학의 전통과는 달리 몸과 마음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몸공부와 마음공부를 조화롭게 병행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박찬욱 외, 2012: 7). 예를 들어, 공자 사상의 핵심 개념들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수기안인(修己安人),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 추기급인(推己及人)에 포함되어 있는 '신(身)'과 '기(己)'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신(身)과 기(己)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포함된 자기 자신을 의미하며, 여기서 자기 자신은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척도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기를 척도로 타인과 자신을 동화(同化)시켜 나가는 사람이 군자라면, 자신에 매몰되어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소인이다(성태용, 2012: 143). 한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나오는 정약용의 다음과 같은 말에도 유학에서의 몸 닦음과 마음 닦음의 통합적 관계가 잘 반영되어 있다.

몸과 마음은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나누어 말할 수 없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것이 곧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니, 다른 두 개의 층차적인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성태용, 2012: 149 재인용).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의 통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익힘(習)의 과정'을 중시하는 측면은

'체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논어』에 나오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와 퇴계의 『자성록』에 나오는 익힘(習)의 개념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우선 학이시습지는 앎과 삶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습(習)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병헌 외, 2009: 52). 또한 『자성록』에는 "묵묵히 공부를 더해가며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익힘(習)을 쌓아 완숙에 이르면, 자연히 마음(心)과 이치(理)가 하나가 되어, 잡았다 놓쳤다 하는 병이 없어질 것이다." (이황, 2011: 9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익힘을 쌓아 완숙에 이르는 길이 곧 체화·체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학의 수양론 전통에서는 학문함의 진정한 목적을 이상적 인간, 즉 성인의 인격을 성취하고 성인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두었다. 유학자들의 견해로 해석하면 성인이란 인(仁)의 덕을 체득하여서, 어느 상황에서나 그 인이 즉각적·자발적으로 발휘되고 그것으로써 생을 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유권종 외, 2009: 93).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성인이란 인(仁)이라는 삶의 기술을 체화·체득한 존재이다. 이 체화·체득의 방법 또는 과정이 곧 수신 혹은 수양이다.

B. 도덕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체화적 접근 : 나바에츠(D. Narvaez) 이론을 중심으로

동시대의 대표적인 도덕심리학자인 다르시아 나바에츠(Darcia Narvaez)는 최근 인성 발달과 교육에 대한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의 핵심은 윤리적 기술(ethical skills)을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인성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덕의 함양의 목표 혹은 성과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테크네(techné)로 표현되는 데, 이는 성공적인 숙련공, 정치가, 혹은 정의로운 사람에 의해 입증된 노하우(know-how)의 유형이다.

나바에츠(Narvaez, 2006: 716)가 말하는 전문성(expertise)이란 실천과 행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숙련된 그리고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문성은 단순히 기술적(technical) 역량이나 지적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덕을 행위로 표출시키기 위해 목표 지향적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일체의 능력을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바에츠는 바람직한 행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 윤리적 동기화 혹은 초점, 그리고 윤리적 행동)마다 7가지 윤리적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표1> 참조). 이러한 삶의 기술들은 개인의 성품 형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

성과 유지,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질 배양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바람직한 행위 산출을 위한 네 가지 요소별 윤리적 기술(Narvaez & Lapsley, 2008: 277)

| 윤리적 민감성 | 윤리적 판단 | 윤리적동기화혹은초점 | 윤리적 행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읽기 및 표현하기 • 타인의 입장채택하기 • 타인과 관계 형성하기 • 다양성에 반응하기 •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 상황 해석하기 •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추론하기 • 윤리적 추론하기 • 윤리 문제 이해하기 • 규칙 사용하기 및 판단 근거 확인하기 • 결과 이해하기 • 판단 과정과 결과 성찰하기 • 역경 극복 및 회복탄력성 되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존중하기 • 양심 계발하기 • 책임 있게 행동하기 • 공동체 일원 되기 • 삶의 의미 찾기 • 전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기 • 윤리적 정체성과 일관성 계발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및 문제 해결하기 • 공손하게 주장하기 •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기 • 실행 계획 세우기 • 용기 계발하기 • 참을성 기르기 • 열심히 일하기 |

한마디로 나바에츠의 입장에서 본 도덕교육은 윤리적 삶의 기술을 체화시켜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녀는 이러한 전문성의 획득은 오랜 기간 연습과 도제를 거쳐 개인이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나바에츠 이론은 윤리적 삶의 기술의 체화를 강조하고, 특히 전문성 습득을 위해 선언적(declarative), 절차적(procedural),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에 대한 학습을 중시하며,²⁾ 개인적 성품 형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 발달 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C.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본 체화적 접근 : 바렐라(F. Varela)를 중심으로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 영역에서는 인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컴퓨터’·‘뇌’·‘몸’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인지주의, 연결주의, 체화론으로 나뉜다(박찬욱 외, 2009: 27). 인지주의와 연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보다 최근의 학문적 시도인 체화적 입장(체화된 마음 혹은 인지 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분리될 수 없고, 마음은 뇌와 동일하거나 뇌의 인과적 기능도 아니며, 마음을 몸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고려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2)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무엇이 어떻다는 지식(knowing what···)’이고,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knowing how···)’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언제 그리고 왜 적용해야할 지에 대한 지식이다 (Anderson, 1983).

수 있다. 즉 몸을 떠난, 몸과 괴리된, 몸에 바탕을 두지 않은 마음이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며, 환경과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마음이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박찬욱 외, 2009: 32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심적 현상은 단순히 뇌의 활동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과 환경이 연결된 총체적인 현상이 된다.³⁾

인지과학, 생물학, 신경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진정한 윤리적 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의 일련 과정인 것이다(Varela, 2009: 26). 이러한 즉각적 대응의 신속함과 자연스러움이 곧 윤리적 행위의 실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즉각적 대응의 과정에 이성적 사유, 즉 판단과 추론이 개입할 틈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일상의 행위들은 이성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실은 평소에 학습을 통해서 익힌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단 그렇게 익힌 노하우가 통하지 않는 낯선 상황에 직면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심각하게 사려함으로써 적절한 행위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유권중 외, 2009: 96).

바렐라에 따르면, 진실로 윤리적인 행동은 단순한 습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표준형들이나 규칙들을 맹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⁴⁾ 진실로 숙달된 사람은 확장된 경향들을 따라서 행위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교훈을 따라서 행위하는 것도 아니다. 확장[推]은 맹자가 지(知)라고 부르는 지적 주의력(intelligent awareness)⁵⁾을 통해서 평소에 익힌 것과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상황이면 막히지 않고 통하게 하는 힘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자신의 숙달된 전문성(expertise)을 닦아 온 사람이 지닌 중요한 요소들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바렐라에게서 진정한 윤리의 본질은 몸과 마음이 함께 터득하여 자연스럽게 발출되는 경향을 지닌 행위와 그것의 확장성이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노하우가 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적 주의력과 확장에 관한 것이다. 이 양자의 근원을 바렐라는 장기

3) 인지과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마크 존슨(M. Johnson)은 『마음속의 몸』에서 “몸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몸속에 있으며, 몸·마음은 세계의 일부이다”라고 주장했다(Varela, Thompson, & Rosch, 2014: 10). 그러면서 레이코프(G. Lakoff)와 함께 마음은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고(마음의 신체화), 인간의 인지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신체적 경험, 특히 감각 운동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고,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 숙련된 대응능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지과학적 차원에서의 체화적 접근을 규칙이나 사회규범을 습관화하여 기계적 혹은 자동적으로 외현적 행동이 발출되도록 연습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체화적 접근은 이치와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몸에 익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심신 통합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지적 주의력이란 무의식적 자발성과 이성적 계산 사이에 있는 중도를 취하는 것이고, 일종의 응집력과 적응력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실체이다(Varela, 2009: 60).

간에 걸친 실천적 훈련을 통해서 체화된 마음이라고 설명한다(유권중 외, 2009: 97). 한마디로 바렐라적 관점에서의 체화는 숙달되고 습관화된 것이 몸에 완전히 배인 상태이고, 윤리적 노하우가 숙달된 상태이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지과학에서 숙달되고 습관화된 것이 몸에 완전히 배인 상태를 '체화'라고 간주하는 것과 유사하게,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것이 기억이 되고 자기화 된다고 말한다. 보통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습관보다 더 깊이 각인된 상태를 가리킨다. 체화는 정보가 소뇌와 근육에 절차적 기억(procedural memory)으로 저장되면서 가능해진다(박경숙, 2016).⁶⁾

D. 종합 : 인성교육에서 체화적 접근의 개념

유학적 전통에서 본 인성교육의 목표는 일상적 삶에서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이 삶의 이치와 일치되고, 그것이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심신일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지과학에서 몸과 마음의 체화는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바렐라적 관점에서 본 인성교육의 목표는 윤리적 노하우가 숙달된 상태 혹은 즉각적, 자발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바에츠의 도덕심리학에서는 윤리적 삶의 기술이 체화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학 전통, 도덕심리학 및 인지과학적 관점을 통해 볼 때, 인성교육 차원에서 체화란 '삶의 이치를 존재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체화적 접근은 삶의 이치를 몸에 익혀서 그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고, 실천, 성찰의 순환적 반복을 통한, 심신이 일치된 습관화 과정을 의미한다.

6) 예컨대 운전이나 수영을 배울 때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 절차가 소뇌와 근육에 기억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전두엽에 저장된 정보부터 감퇴하는데, 소뇌에 저장된 절차 기억의 경우, 비교적 오랫동안 쇠퇴하지 않는다. 또한 근육이 기억하는 정보는 인지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

Ⅲ. '체화'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교육적 인간상 설정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등을 설계할 때 해당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은 그 교육의 방향과 필요한 조치들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이후에 진행될 교육의 방향을 알려주고 어떤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며 기대했던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오현석·유상욱, 2015: 139). 특히 인성교육 분야의 경우, 개념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인성교육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는 교육적 인간상 설정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을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가 체화됨으로써 즉각적, 자발적으로 행위 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인간상 설정을 위해 우선 인성교육에서 체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A. 인성교육에서 체화적 접근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은 실천·체험 접근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⁷⁾ 이러한 '실천·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접근'은 삶과 분리되고 파편화된 지식 전달(delivery) 중심의 교육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성교육의 새로운 대안이자 목표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접근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니라, 실천·체험, 참여적 경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깨우치는, 혹은 학생들이 스스로 소중한 가치나 덕목들을 발견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며 인성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인성교육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근거하여 등장한 이러한 실천·체험 접근은 인성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표지(標識)를 제공했고, 의미 전달의 용이성⁸⁾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단한 수신과 수양을 강조했던 유학 전통, 그리고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를 통한 즉각적, 자발적 행위를 강조하는 현대의 도덕심리학적, 인지과학적 근거를 통해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8) 교육 주체들에게 인성교육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편리함을 말한다.

볼 때, 실천·체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체화'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 또한 실천·체험은 인성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태 정도에서, 혹은 인성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정도에서 교육 실천의 의의를 찾으려는 문제점 및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천·체험의 지속성과 연속성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체화' 개념을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와 더불어, 인성교육에서 체화적 접근은 일상생활에서 앎과 행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실패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된다. 이는 체화 없이 일관성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주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 경계하고 있으면 흔히 무의식 중에 다른 잘못을 범하곤 한다. 방심하고 있으면 습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도 했다. 타고난 성향이 너무 강해 이성엔 그 힘에 맥을 못 낼 때도 있었다. 드디어 나는 완벽히 덕스럽게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단순한 추상적인 믿음만으로는 일탈을 막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내 몸의 일부로 체화(體化)시키지 않으면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Haidt, 2010: 27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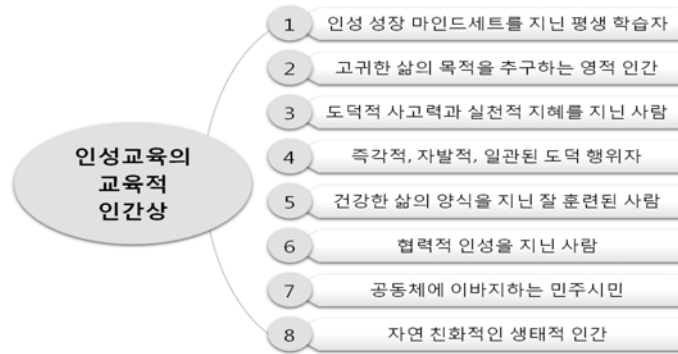
B. 체화 지향적 인성교육 인간상 구상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를 체화하여 어느 상황에서도 삶의 기술과 노하우 등이 즉각적, 자발적으로 발휘되고 그것으로 일관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바렐라가 일상생활에서의 진정한 윤리적 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의 일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사람은 앎을 추구하는 것과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평생도록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에 숙성시켜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자기-타인-자연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가 체화된 사람으로서 '좋은 행위를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에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인간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인간의 모습은 ① 인성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평생 학습자, ② 고귀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정신적·영적 인간, ③ 도덕적 사고력과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 ④ 즉각적, 자발적, 일관된 도덕 행위자, ⑤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

닌 잘 훈련된 사람, ⑥ 협력적 인성을 지닌 사람, ⑦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 ⑧ 자연 친화적인 생태적 인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 성장 마인드셋(혹은 마음의 태도)를 지닌 평생 학습자(a lifelong learner)'이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란 능력은 고정된 것 혹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행(practice)을 통해 성장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고(Dweck, 2006), 인성 성장 마인드셋(character development growth mindset)는 체화·체득을 통한 인성 함양은 평생이 소요되는 것이고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의해 인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좋은 인성은 한 사람의 삶이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 수준을 단정지어 성급한 결론이나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되며 항상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인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시되어야 한다.⁹⁾

【인성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평생 학습자가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인성 함양을 향한 평생 학습자로서의 마음의 태도 갖기
-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믿음을 갖고 타인의 변화 가능성 존중하기

둘째, '고귀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정신적·영적 인간(a spiritual person)이다. 이러한 사람은 실존적인 질문들, 예컨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하고자 하며 고귀한 목적의 삶을 추구하고, 이를 추구할 방법들을 찾는다. 또한 믿음, 아름다움, 그리고 좋음과 같이 초월적인 가치들을 존

9) 인성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노력을 통해 차이 혹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추구하고 의미 실현의 장으로 고양시키려는 진지한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삶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길을 가는 존재이다(고병헌 외, 2009: 329).

중하고 감사해 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삶을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進路]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은 진로교육과 접점을 갖게 된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삶의 몫을 일깨워주는 정신적 자각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귀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정신적·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실천적인 자세 갖기
- 고귀한 삶과 비천한 삶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 형성하기
- 진정한 꿈 혹은 삶의 목적 갖기

셋째, ‘도덕적 사고력과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a man of practical wisdom)’이다.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은 좋은 판단(앞서 언급한 확장[推]), 도덕적 추론,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포함한 올바른 안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귀한 삶의 목적과 효과적인 도덕적 행위를 위한 윤리적 노하우, 잘 확충된 양심, 그리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실천적 지혜를 통해 합당한 판단¹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서의 조화가 필요하고,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은 삶을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¹¹⁾

【도덕적 사고력과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자신의 삶의 내러티브(life narratives)를 확장[推]해서 판단하기
-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 추론하기
- 어떤 결정을 할 때 정서와 이성을 모두 활용하기

넷째, ‘즉각적, 자발적, 일관된 도덕적 행위자(a moral agent)’이다. 이러한 사람은 체화된 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위를 즉각적, 자발적, 일관된 형태로 표출하되,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수행한다. 그리고 옳은 것과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행위를 공손하게 반대하는 양심의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또한 강력한 자기 효능감과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에 대해

10) 합당한 판단은 rational이 아닌 reasonable에 가깝고 『중용』의 시중(時中: 때에 맞추어 중용을 실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혹은 이성보다 정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최근에 신경과학 연구 성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이성보다 정서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성과 정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11)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혹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갖추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성격적 탁월성(혹은 성품의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Aristoteles, 2008: 231)는 주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겸허히 책임지고자 하고 좋은 예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즉각적, 자발적, 일관된 도덕 행위자가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일관되게 행위하기
-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도덕적인 행위하기
- 이타적, 친사회적으로 행위하기(나눔과 베품, 봉사의 실천 포함)

다섯째,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닌 잘 훈련된 사람'(a self-disciplined person)이다. 이러한 사람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자기 통제력을 보이며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추구한다. 또한 건강한 자신감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누구나 인간은 상처 받을 수는 있으나 잘 훈련된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 혹은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나 건강한 삶의 양식, 그리고 긍정적 미래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개인적 선택들을 한다.

【건강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잘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마음 치유 및 회복탄력성 갖기
-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하기
- 자기의 존재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여섯째, '타인과의 관계적 삶을 증진시키는 협력적 인성을 지닌 사람(a cooperative person)'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고 배려의 능력을 포함한 상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하며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한다. 또한 과도한 경쟁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타인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협력적 관계 형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관계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내면의 깊이도 깊어지고, 인간미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협력적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으로 팀 작업 수행하기
-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

일곱째,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자 민주적인 시민'(a democratic citizen)이다. 이러한 사람은 가족, 학교,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되는 시민적 덕목들이나 기술들을 실행한다. 또한 국가의 민주적 유산이나 가치들을 감사해 하며 인류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상호의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

과 참여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성인기에 공동체 참여 및 헌신의 태도를 갖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Damon, 2012: 94), 청소년기에 시민성교육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 차이(예: 문화, 성별, 종교 등)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기
 -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수준에서의 정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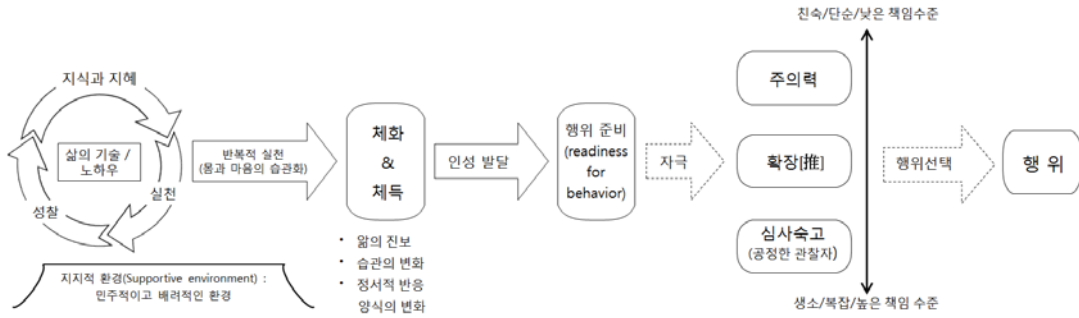
여덟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인간(an ecological person)'을 길러낼 수 있다. 생태적 인간이란 자연의 바깥쪽에 있는 국외자가 아니라 자연의 연속적인 존재이고(고병헌 외, 2009: 221),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인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해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또한 생태적 인간은 자연, 그리고 보다 높은 어떠한 힘에 대하여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인간이 되기 위한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
- 우주 자연 만물 앞에서 겸손한 태도 갖기
 - 자연의 아름다움 및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감수성 갖기
 - 자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참여적 태도 갖기

IV.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 모형과 교사 및 학교장의 실천 역량

이 장에서는 인성교육 인간상 구현을 위한 '체화적 접근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의 실천적 적용에 필요한 교사와 학교장의 실천 역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A. 인성교육에서 체화적 접근 모형



[그림 1]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 모형

인간다운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는다는 것은 '삶의 이치, 삶의 이상, 혹은 절도에 맞게 제대로 행위 할 줄 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조건적 지식을 이미 지니고 있으며, 단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혹은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실제 머릿속의 앎과 실천적 삶의 영역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연마하기 위한 출발점은 지식과 지혜의 습득, 실천적 적용의 반복, 그리고 성찰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각 요소에 대한 학습은 모두 인간다운 삶의 기술과 노하우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우선 지식과 지혜의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하고, 삶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식 혹은 삶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음미할 수 있고, 즉각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를 이해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권석만, 2011: 143 재인용). 이러한 삶의 지혜는 다음과 같은 공부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첫째, 무엇이 어떠한다는 지식 유형인 선언적 지식을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인 절차적 지식을 구축해 나가거나, 앞 사람의 저술이나 가르침을 토대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정립해 나가는 방식의 공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과 실현 방법을 교과서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일 뿐

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삶에 자신의 생각이 더해져서 '행복한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행복한 삶의 실현 과정은 일정한 기준 치수에 따라 만든 기성복을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맞춤형 옷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행복의 실현은 저마다 자신이 열어가고자 하는 행복의 세계를 깨닫고 자신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해서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둘째,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타인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으로 확장[推]해 나가는 방식의 공부가 필요하다. 확장[推]은 과거의 축적된 자신의 삶의 지혜를 응용하는 것이다. 확장 속에는 삶의 이야기(life narrative)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확장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활용되게 되어 있다. 확장의 논리에 따르면, 항상 학생 자신이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타인의 삶이나 공적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학생 자신의 생생한 삶의 내러티브를 현재 직면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미루어 짐작해 가는' 확장[推]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생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자신에 비추어 남의 입장을 판단하는 사유 연습은 그 자체로 수양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셋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보면 '공정한 관찰자(the judicious spectator)' 개념이 등장한다. 공정한 관찰자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진 제삼자를 뜻한다(Smith, 2009).¹²⁾ 또한 공정한 관찰자란 자기기만 혹은 자신의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뜻하기도 한다.¹³⁾ 이와 같은 자기기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극악한 살인자조차도 자신의 행위가 왜 정당한지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기만의 한계를 지닌 존재인 동시에, 타인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스미스에 따르면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12) 데이비드 흄으로부터 유래된 '공정한 관찰자' 개념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며, 이후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마사 누스바움 등의 윤리학에서 논의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Nussbaum, 2013: 42).

13)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말한 자기기만의 베일이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내 얼굴을 가려준다. 그 신비로운 베일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맨얼굴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다(Roberts, 2015: 93).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도 애덤 스미스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고 말했다(Roberts, 2015: 94). 이러한 자기기만은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확증편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Aronson, 2002: 161). 쉬운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가 바로 확증편향이다.

바라볼 수 있다(Roberts, 2015: 54). 공정한 관찰자를 자주 떠올릴수록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와 같이 공정한 관찰자가 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혹 확장[推]의 기저에 놓여있는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확장이 적용되기 어려운 복잡하고 생소한 문제를 위한 심사숙고의 과정에서 사려 깊은 행위자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적용의 반복은 지식과 지혜가 실천과 연결되어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실천의 반복을 강조한다고 해서 규칙이나 사회규범을 습관화하여 기계적 혹은 자동적으로 외현적 행동이 발출되도록 연습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체화적 접근은 이치와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몸에 익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심신 통합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면 이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합일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 유학 및 불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지식·지혜와 실천의 연결 및 순환적 관계를 보다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촉매제는 성찰이다. 성찰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자신의 행동과 경험, 자아정체성, 세계관, 삶의 목적 및 이상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인성 함양을 위한 성찰은 하루에 한 번씩만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시로 해나가되, 신체와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성찰 방법(퇴계가 강조한 體察¹⁴), 불교에서 강조한 止觀 명상¹⁵의 응용 - 마음챙김 명상)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¹⁶ 이러한 성

14) 체찰(體察)은 몸으로 직접 살피는 일로 마음이 이미 펼쳐져 욕심으로 빠지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사람의 욕심을 제어하는 공부이다(신창호, 2010: 94).

15) 지관(止觀) 명상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올바른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수행법이다. 지(止; samatha)는 머무는 것이고, 관(觀; vipassana)은 지켜보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운(2015), pp. 258-281을 참고하기 바란다. 불교 명상의 응용인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챙김을 계발하는 훈련법이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생각과 욕구를 멈추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다. 아무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깨어서 경험되는 의식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며, 철저하게 순수 관찰자로 존재하며 인식하는 훈련이다. 이와 같은 순수 관찰을 통해 자기와 세계에 대한 통찰의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마음챙김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판단을 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다.

16) 성찰은 단순히 추상적이며 신체와 분리된 활동으로서의 반성에서 체화된 그리고 열려진 반성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체화되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성찰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이 의도하는 바는 성찰은 단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경험의 한 형태라는 것, 그리고 반성적 형태의 경험은 퇴계가 강조한 체찰(體察)이나 불교의 지관(止觀) 명상 형태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성찰이 그렇게 행해지면 우리는 습관적인 사고패턴과 선입견의 연쇄를 중단하고 생활공간에 대한 표상에 현재

찰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아무런 편견 없이 들여다보거나 순간순간 마음(혹은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지나친 탐욕, 잘못된 정서표현(특히 분노) 등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우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개방적, 자기 변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깊어지게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한편, 인성 함양이 이루어질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학교 및 교실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풍토 혹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지닌 안전의 욕구, 관계적 욕구(인정, 존중, 사랑, 소속감 등)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매슬로(A. H. Maslow)의 욕구단계설, 나비에츠의 삼층윤리이론(안전윤리, 관계윤리, 공동체윤리), 메릴린 왓슨(M. Watson)의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 조성 방법론¹⁷⁾ 등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혜와 실천, 성찰의 경험(새로운 안목이 생겨나거나 진보하는 경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험,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는 경험)이 순환적,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몸과 마음의 습관화와 기술 혹은 노하우의 숙련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체화와 체득이 가능해 지며, 이 단계에서는 습관의 변화(즉 惡習의 善習으로의 변화), 삶의 진보(무지 혹은 無明 상태에서 지혜를 갖춘 상태로의 변화), 정서적 반응 양식의 변화(정서조절 및 통제, 마음의 평화 혹은 평정심 유지) 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써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readiness for behavior)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식으로 응대하면 된다. 친밀하고 단순하며 비교적 책임 수준이 낮은 문제에 직면할 경우, 주의력과 자연스러운 자발심을 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행위하면 되고,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경험세계의 연장, 혹은 체화된 마음의 확장 등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여 행위하면 된다. 반면 자신의 경험세계 외부에 해당하고 복잡하며 책임 수준이 높은 문제 사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특히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해보면 된다.

주어진 것 외의 것에 대해서도 개방된 반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반성의 형태를 체화된, 개방된 성찰이라 부른다(Varela, Thompson, & Rosch, 2014: 67).

17) 메릴린 왓슨(M. Watson)은 학생들이 자율성(autonomy),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 능숙함(competence)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학교와 교실을 배려공동체로써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atson & Benson(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B. 체화적 접근 모형의 적용을 위한 교사와 교장의 실천 역량

1.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실천 역량과 과제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삶의 방식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보살핌과 존중의 태도로 다가갈 것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사 전문성의 일부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혹은 그 주변에서 일한다면, 당신은 인성교육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Berkowitz, 2002).”는 버코위츠(M. Berkowitz)의 주장, 교직을 선택한 출발점이 다름 아닌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도덕적인 동기였다는 점(Sanger & Osguthorpe, 2013), 그리고 학생에 대해 알고 잘 가르쳐야 하며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제각각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Carr, 2010)을 종합해 보면, 인성교육 전문성이 교사 전문성의 필수적인 기반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에 인간다운 삶의 기술의 체화가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 본 연구자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삶의 기술의 체화 수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인성교육 전문성 혹은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도하는 교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 연구자의 주장은 나바에츠의 견해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나바에츠는 모든 교사, 특히 인성 발달을 추구하는 교사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윤리적 삶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창우, 2013: 282).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혹은 실천 역량 중에서 특히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를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교사선발과정에서 인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때 삶의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기술의 체화를 포함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들을 성취기준 방식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정창우, 김란, 이경은, 황광원, 2016).

【교사의 교육철학 및 신념】

- 가르친다는 것의 도덕적인 측면,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다.
- 교사는 자신의 가치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이며,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흥미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지하

고, 하나의 정답이 아닌 최선의 행동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존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

-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과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의 제공자라는 생각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content knowledge)과 삶의 문제(혹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연결해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라고 인식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을 어떤 특수한 배경, 능력, 태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부버와 레비나스 등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¹⁸⁾ 한 인간으로 대면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 인성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growth mindset)과 인성교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teaching-efficacy)을 가질 수 있다.

【인성 발달 촉진을 위한 지도 및 평가 방법】

- 인성 발달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협동 학습, 프로젝트학습, 도덕적 딜레마 토론, 역할놀이 등 학생 중심의 참여적 수업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율과 배려, 공감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성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동기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 인성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평가방법(도구)을 개발·적용하고, 그 결과를 인성 발달 촉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과 삶의 문제를 연결 지어 생각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게 내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등에 대한 물음을 교과 시간에 흔히 가질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는 박제화 된 지식 혹은 무기력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인성 발달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방법(정서적, 배려적 공동체 풍토 조성, 학업윤리 강조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 갈등해결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학부모,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인성 발달 촉진을 위한 교사-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 방식】

-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인성 발달에 필수적이고, 상호작용의 방식이 인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¹⁹⁾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skills)을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할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내재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 간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갈등해결과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협동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촉진자가 될 수 있다.

【교사 자신의 인성 함양 및 책임감 측면】

- 교사 스스로 다양한 이슈, 토픽, 딜레마 등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 및 추론능력을 갖추고 민주적인 소통기술과 교직에 대한 도덕적 책무감을 가질 수 있다.

- 교사 자신의 삶의 기술(skills) 혹은 노하우, 즉 정서인식, 정서조절 및 표현 능력, 합리적·윤리적 의사소통 능력, 갈등해결능력,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공감적 태도 등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 교사 자신의 시민성(민주주의 가치 존중 및 참여, 사회적 양심 및 정의에 대한 헌신) 함양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에게 기존의 강의와 질의응답식의 연수가 아니라 (교사 자신이 주체로 참여하는) 자율연수를 통해 성찰적 연수 기회가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교사, 인성교육을 생각하다』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성찰적 교원연수’개념은 교사가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 검토를 해 나갈 때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정창우 외, 2016: 머리말).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성찰적 교원 연수는 새로운 이론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단순한 테크닉 혹은 기법을 습득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교사 자신이 가진 경험을 반성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자신이 인성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동료 교사와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표2〉 성찰적 교원 연수의 예시

| ‘인성 발달 촉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관련 토의·토론 및 활동 과제(예시) | |
|---|--|
| 토의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나의 반응(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교사로서 나는 우호적이고 배려적인 사람인가요? 친절함과 단호함의 균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18) 교사들은 학생들을 부, 명예, 성별, 인종 등으로 분류하기 이전, 사람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러한 만남을 중시해야 하는 존재이다. 부버는 이러한 개념을 ‘나와 너(I-Thou)’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으며, 레비나스 역시도 ‘타자와의 만남’을 중시한다. 즉 부버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똑똑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성격이 어떤지 등과 같은 세상의 일상적인 기준을 초월하여 오직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온전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레비나스는 자신과 다른 것을 자신과 비슷한 것으로 동일시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존재를 내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19)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교사가 드러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양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며,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이해를 구성해 나간다.

| | |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의 사용을 적어보고 비교해 보기 •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말을 적절하게 바꾸어 보기 •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나의 신뢰감 스스로 표시해보기 • 나-전달법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을 형식에 맞추어 써보기 |
|----|--|

끝으로 교사가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우선 교사는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 가르치는 지식이 삶을 사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내용이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어야 그 교육은 살아서 학생들의 가슴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다(고병현 외, 2009: 17). 말한 대로 살아야 하고, 그 전에 살아온 대로 말해야 한다. 자신의 과목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수행하는 가르치는 일에는 단순히 교육하는 사람 자신이 아는 것을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지식과 함께 교사 자신의 가치체계²⁰⁾와 삶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2.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실천 역량과 과제

인성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교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성교육 리더십을 가진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좋은 비전을 가져야 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려는 확고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직원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을 중시하며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인성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인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학교 인성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장의 인성교육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장은 아주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그리고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한다. 본 연구자가 볼 때 학교장이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좋은 생각과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 하에, 교장의 일차적인 역할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와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20) 물질적 혹은 경제적, 신체적, 심미적, 정신적, 종교적 가치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 중에 어떤 가치를 보다 선호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키고자(protecting) 하는 사람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참여 및 협조 없이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 공부와 대입 준비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장 등 누군가가 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냉소적 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성교육 리더십을 지닌 학교장이려면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창의성교육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중핵 과제를 교사와 학부모에게 인식시키고, 실제로 이들을 진정한 동반자 혹은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는 모든 교과와 모든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학교 인성교육과 일관된 지도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체화적 접근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은 모든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효능감(efficacy) 증진을 위해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 지도방법상의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도록(혹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의 인성교육 리더십】

-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좋은 생각과 철학을 지니고 있다.
-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지니고 있다.
-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교직원들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한다.
- 인성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동참시키고, 이들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한다.
-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실천·체험의 기회를 몇 번 제공해주었느냐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노력이 지속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체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단기 혹은 일회성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전시적 효과 혹은 하루 이틀 간의 단기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 학생들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잘 조직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행하고자 노력한다.

V. 맺음말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필자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인성교육 연구와 실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학문(유학 전통,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길, 즉 인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의 체화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런 체화적 접근은 현행 대입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수시전형의 비중이 차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인성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도록 조장하고, 잔피를 써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인성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가에 치중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재승박덕(才勝薄德)형, 소크라테스가 비판했던 소피스트형, 그리고 맹자가 비난했던 사이비 군자로서의 향원(鄉原)²¹⁾형 인재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재승박덕형이나 소피스트형, 향원형인지, 아니면 겉과 속이 일치하고, 살아온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인물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의 학교 인성교육이 몸과 분리된 마음의 차원, 그리고 체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천·체험의 차원을 넘어서 심신의 통합적 차원과 인간다운 삶의 기술의 체화 차원을 고려하면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21) 맹자는 삶의 이치를 몸에 익혀서 자기화 한 '군자'와 무늬만 군자인 '향원'을 구분한다. 맹자에 따르면 향원은 세속에서 옳다고 간주되는 탁월한 모조품에 해당한다. 맹자는 "그들은 말이 또 얼마나 번드르르한가! 말은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입만 열면 옛 성인을 운운한다. 그 행동이 또 얼마나 그럴듯한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지금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라는 태도로 은밀히 세상에 영합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맹자』 진심 14-37 이하 동일)라고 하면서 향원을 도덕의 적(賊)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유학에서 '군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최고의 긍정적 인간상을 지칭하지만, '향원'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피와 비난의 부정적 인간상을 대변한다.

참고문헌

- 고병현 · 김찬호 · 송순재 · 임정아 · 정승관 · 하태욱 · 한재훈 (2009).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 서울: 이매진.
- [Go, B. H. et.al. (2009). *Teachers ask alternative ways*. Seoul, South Korea: Imagine]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서울: 학지사.
- [Kwon, S. M. (2011). *Positive characters in human beings*. Seoul, South Korea: Hakjisa]
- 박경숙 (2016). **문제는 저항력이다**. 서울: 와이즈베리.
- [Park, K. S. (2016). *Resistance matters*. Seoul, South Korea: Wiseberry]
- 박찬욱 · 김종욱 · 강신익 · 변희욱 · 성태용 · 우희종 · 정준영 · 조광제 (2012).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서울: 운주사.
- [Park, C. W. et.al. (2012). *Are our bodies the foundations for mind cultivation, or the barriers hindering it?* Seoul, South Korea: Unjusa]
- 박찬욱 · 김종욱 · 미산 · 한자경 · 윤원철 · 최화 · 김종주 · 이정모 (2009).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운주사.
- [Park, C. W. et.al. (2009). *How does our mind move?* Seoul, South Korea: Unjusa]
- 성태용 (2012). **수신과 양생: 몸 닦음과 마음 닦음의 조화.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서울: 운주사.
- [Seong, T. Y. (2012). Cultivating and fostering. In Park, C. W. et.al. (Eds.). *Are our bodies the foundations for mind cultivation, or the barriers hindering it?* Seoul, South Korea: Unjusa]
- 신창호 (2010). **조선의 지성 퇴계 이황의 마음공부법 : 함양과 체찰**. 서울: 미다스북스.
- [Shin, C. H. (2010). *Methods of Mind cultivation of Toegye Yi Hwang as a greatest mi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Seoul, South Korea: Midasbooks]
- 오현석 · 유상욱 (2015). **미래 인재의 조건. 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서울: 학지사.
- [Oh, H. S., & Yoo, S. O. (2015). Key Conditions for future human resources. In Kim, D. I. (Ed.). *Designing the future of education*. Seoul, South Korea: Hakjisa]
- 유권중 · 강혜원 · 김경호 · 장숙필 · 박충식 · 최상진 (2009). **유교적 마음모델과 예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 [Yoo, K. J. et.al. (2009). *A Confucian mind model and etiquette education*. Paju, Kyonggi, South Korea: KSI]
- 이기운 (2015). **심신치유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관명상(止觀冥想) 수행법 연구**. 불교학보, 70, 258-282.
- [Lee, K. H. (2009). A study of Jigwan meditation performances for construction of mind and body healing programs. *Bulletin of Buddhist Studies*, 70, 258-282.]
- 이황, 윤사순 역주 (2011). **퇴계선집(자성록, 논사단칠성서, 성학십도)**. 서울: 현암사.
- [Yi Hwang. *Toegye's collected works* [퇴계선집] (Translated into Korean by S. S. Yoon). Seoul, South Korea: Hyunamsa]
- 정창우 (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 [Jeong, C. W. (2013). *Theories and issues in moral education*. Seoul, South Korea: Ulyuck.]
- 정창우 · 김란 · 이경은 · 황광원(2016). **교사, 인성교육을 생각하다**. 파주: 교육과학사.
- [Jeong, C. W. et.al. (2016). *Teachers think character education*. Paju, Kyonggi, South Korea: kyoyookbook.]
- Anderson, J. (1983). *The architecture of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eles. (2008). *Ethica Nichmachea* [니코마코스 윤리학] (Translated into Korean by C. W. Lee., J. H. Kim., & S. J. Kang). Seoul, South Korea: Ejbooks.
- Aronson, E. (2002). *Social psychology* [사회심리학] (Translated into Korean by . S. Goo). Seoul, South Korea: Tamgudang.
- Berkowitz, M. (2002).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Bringing in a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CA: Hoover Institution Press Publication.
- Carr, D. (2010). *Personal and professional values in teaching. International research handbook on values education and student wellbeing*. New York: Springer.
- Damon, W. (2012). *The path to purpose*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Translated into Korean by C. W. Jeong., & H. M. Han). Seoul, South Korea: Hankyung BP.
- Dewey, J. (1922).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London: G. Allen & Unwin.
- Dweck, C. (2006).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Random House.
- Haidt, J. (2006). *The happiness hypothesis* [행복의 가설] (Translated into Korean by O. R. Kwon). Anyang, South Korea: Mulpure.
- Narvaez, D., & Lapsley, D. K. (2008).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Translated into Korean by C. W. Jeong). Paju, Kyonggi, South Korea: Ingansarang.
- Narvaez, D. (2006).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ussbaum, M. C. (2013). *Poetic justice* [시적 정의] (Translated into Korean by Y. J. Park). Seoul, South Korea: Kungree.
- Roberts, R. (2015).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Translated into Korean by H. J. Lee). Seoul, South Korea: Segyesa.
- Ryle, G. (2004). *The concept of mind* [마음의 개념] (Translated into Korean by H. W. Lee). Seoul, South Korea: Moonye Publishing Co.
- Sanger, M. N., & Osguthorpe, R. D. (2013). *The moral work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eparing and supporting practition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mith, A. (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도덕감정론] (Translated into Korean by S. I. Park & K. K. Min). Seoul, South Korea: Bibong Publishing Co.
- Varela, F. (2009). *Ethical know-how* [윤리적 노하우] (Translated into Korean by K. J. Yoo & C. S. Park). Seoul, South Korea: Galmuri.
- Varela, F., Thompson, E., & Rosch, E. (2014). *The embodied mind* [몸의 인지과학] (Translated into Korean by B. R. Seok). Seoul, South Korea: Gimmyoung.
- Watson, M., & Benson, K. (2007). Creating a culture for character. In M. J. Schwartz (Ed.),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정창우 (jcwwoo@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동 대학 교육종합연구원 인성교육연구센터장임. 도덕발달 및 도덕교육, 인성교육, 도덕성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 등이 주요 연구주제임.

